

SK에너지, VOCs 감축 강화한다!

울산 컴플렉스에 배출저감 시설 설치 ... 인근지역 배출량 98% 줄어

SK에너지가 VOCs 배출 감축을 강화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울산 컴플렉스 해상 출하장에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저감 시설을 설치했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주로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VOCs는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인체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SK에너지는 석유제품을 선박으로 실어 나를 때 배출되는 VOCs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230억원을 들여 남구 용잠동 내항과 외항의 해상 출하장 6곳에 배출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SK에너지는 VOCs 배출저감 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용잠동 일대의 VOCs 배출량이 9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익상 생산기술본부장은 “해상에 배출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석유제품을 배로 옮겨 실는 출하장의 VOCs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7>